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록 제08호 [매체]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6년 10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D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선) 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 디자인로드 www.cd0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62 5323

## 지역특성화로 동북아 중심대학을 꿈꾸는 인천대

머릿글 남서울대 교수 양종관

10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커버스토리 인천대학교 총장 박호군

경영이야기 (주)지아이에스 사장 여호영

지자체특강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양병무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주)아리고 회장 송병순

회원&연구소식 / LMI & YOU

한중경제협력대표단 참관기

조순칼럼

표지인물 박호군 총장 / 사진 오경근 원장

2006 October

# 10



산자부장관상 / 홍은초교 6학년 최 승 희



금상 / 일반부 최 영 미

## 고객의 안전이 우리기업의 발전입니다.

내손으로 하는 30초의 가스점검이  
나의 가족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켜 줍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www.seoulgas.co.kr](http://www.seoulgas.co.kr)



# 훌륭하고 향기로운 말솜씨

양종관 남서울대 교수



## 흔히들 말솜씨,

음식솜씨, 글솜씨, 그림솜씨 등 많은 솜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솜씨 중에도 훌륭하고 향기로운 인간관계와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훌륭하고 향기로운 말솜씨가 생명이다.

말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기 의사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적인 사

항이다. 말솜씨가 훌륭하고 향기로우면 훌륭하고 향기로운 인간관계와 리더십이 발휘되지만 말솜씨가 훌륭하지 못하고 악취가 나면 패가 망신 당하거나 인간관계나 리더십을 해치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말솜씨를 훌륭하고 향기롭게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즉, 좋은 말솜씨를 구사한다는 것은 때와 장소,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여 조리 있고 논리적이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고 정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만을 말하고 진실 되며 신뢰감을 줘야 한다. 또한 말로 인해 오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 되게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말은 보약이 되지만 나쁜 말은 독약이 된다. 즉, 희망적인 말은 생명과 사랑과 비전을 주지만 절망적인 말은 죽음과 비애와 좌절을 준다.

옛부터 말은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수단이 되었다. 속담에 ‘말품을 팔아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말품이란 ‘말을 조리 있고 정연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무생각 없이 중언부언 말이 많고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 말이 없다. 물건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주울 수 있지만 말은 한번 하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훌륭하고 향기로운 말솜씨를 창출해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든지 “말 잘하고 뽀 맛은 법 없다”라는 속담도 있다. 우리는 금전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은 아끼려 하지 않는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곧 금전과 다를 바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

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선조들의 시조에도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 많음이 어찌러”와 같은 시조가 있고, 劉會 曰, “言不中理면 不如不言이니라” 유희의 말솜씨에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말과 신용이 따라야 한다는 뜻에서는 “一言不中이면 天語無用이니라” 즉,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소용이 없다”라고 했다. 또 한 말과 행동은 무겁게 하자는 충고에서 君주 曰, “口舌者는 禍患之門이요, 滅身之斧也니라” 군평의 말솜씨에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다”라고 명심보감에서 일깨워 주고 있다.

말은 습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좋은 말, 따뜻하고 포근한 말, 이롭고 호감을 주는 말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利人之言은 煖如綿絮하고 傷人之語는 利如荊棘하여 一言半句는 重值千金이요, 一言傷人에 痛如刀割이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으니 한마디 말이 사람을 상함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한 “口是傷人斧요 言是割舌刀니 開口深藏舌이면 安身處處로니라” “입은 곧 남을 상처 내는 도끼요, 말은 곧 자기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으나 편안할 것이다”라고 했다. “逢人且設三分話하되 未可全拋一片心이니 不怕虎生三個口요 今恐人情兩樣心이니라” “사람을 만나거든 우선 하고 싶은 말의 10분의 3만 하되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한 조각 마음은 다 버리지 말아야 하니 호랑이의 세 개 입을 두려워 말고 오직 사람의 두 가지 마음을 두려워하라”고 했다. 이밖에도 무심코 하는 말이 자신은 물론 남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기에 옛부터 말의 조심성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들이 있다

“넌 정말 멋있어, 나에겐 네가 필요해” 이 말 한마디가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 한마디 말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그 힘은 평생을 간다. 질책과 경멸은 사람이 주눅들고 기가 죽지만 격려와 칭찬은 용기를 북돋아준다. 좋은 점, 잘 한 일에 대해 그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인정해 줌을 같증을 느끼는 나무에게 물을 부어주는 것. 사람은 분명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人間)



### 양종관 교수

남서울대 세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양종관 교수는 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주)GUI 회장, (사)한국경영인협회 이사, 국제한국회계학회 이사, 북악경제학회 부회장 등으로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양 교수는 한국경영인협회 수석컨설턴트, 인적개발 및 조직개발컨설턴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Facilitator로도 활동 중이다.

# 10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성 한국화가

1945년 경북 청도 출생 / 파리나갤러리 초대전, 호암갤러리 대작 100여점, 실크로드기행전, 중국문화원 개원전 외 개인전 다수 / 청년작가 10인전, 한국화대표작가 6인전,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 외 단체전 다수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 동아일보 한국화부문 최고작가선출 / 동아미술대전 분과위원장 / 정수미술대전 심사위원장 / 성균관대, 세종대, 경희대 출강 <수상> 제1회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제2회 중앙미술대전 대상, 제5회 문신미술상 외



김충남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

육군사관학교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졸업 / 美 미네소타대 정치학 박사 / 육군사관학교 교수 / 대통령비서실 사정, 정무, 공보비서관 / 美 미네소타대 객원교수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美 RAND연구소 아태센터 자문위원 <상훈> 보국훈장 삼일장, 홍조근정훈장 외 <저서>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대통령과 국가경영 : 이순만에서 김대중까지 외



홍원표 KT 휴대인턴넷사업본부 전무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 美 미시건대 전기공학 박사 /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 美 MIT 고급경영자 과정 / 美 벨 통신연구소 / KT 연구개발본부 PCS개발 총괄 / KTF 마케팅부문장 / KTF 기획조정실장 / KT 글로벌사업단 단장 <상훈> 로타리대학원 우수상, 일본 통산성 국제연구협력상, 한국통신기자협회 올해의 기술상

## 동양화는 인격으로 그리는 그림, 예술혼으로 담아낸 천년 신라의 꿈

1473회 10월 12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룸

동양화는 물감이 아닌 '인격'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는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화해야 하고 나의 근본이 자연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붓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미술계에서 한국화의 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대중적 인기도 감소해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미술계에서 한국화에 대한 한결같은 박대성 화백의 예술혼은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그의 열정이 동시대인과 호흡할 수 있는 현대적 조형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관록의 진정한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박대성 화백은 제도권 정규교육을 받은 적도, 특정 스승에게 사사받은 적도 없다. 다섯 살 때 6.25가 일어나면서 부모님과 왼손을 잃어버린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림이 좋아 고된 독학의 길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70년대 국전에서 8번 수상하고,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학맥을 중시하는 동양화단에서 기적과 같은 성과를 일구었다.

그런 그가 9월 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천년 신라의 꿈'이라는 부제를 달고 6년만에 개인전을 열었다. 10년 주기로 화풍을 바꾼 그가 경주로 작업실을 옮긴 후 처음 열린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마음속에 깃든 신라 천년 고도의 이미지를 시각화 한 것으로 경주의 산수 속에서 숨쉬는 예술가의 사색과 명상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화가 서양화에 밀려 위기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한다면 탈출구가 있을 거라며 50년 넘게 한국화에 예술혼을 불어넣고 있는 소산(小山) 박대성 화백을 초빙하여 인격으로 그린다는 한국화의 세계를 음미하고, 그의 작품세계를 통해 진정한 예술혼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한미관계

1474회 10월 19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룸

9.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전략과 한반도정책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동맹관계도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은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불안요인 증대에 대해 일본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 지역 정세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의 안보여건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슬기로운 대외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의 안보전략변화는 냉전종식으로 구 공산권이 시장경제권에 통합되면서 세계화가 가속적으로 일어나 국가간 경제적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 세계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는 물론 테러와의 전쟁에 전념해야 하는 2중고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안보전략의 최우선순위가 되면서 한반도정책은 2차적 또는 3차적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통령연구 전문가이며 미국 연방정부지원 연구소인 동서문화센터에서 지난 9년 동안 한미관계 등 외교안보문제를 연구해 온 김충남 박사를 초빙하여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미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제2의 인터넷혁명과 IT사업의 미래

1475회 10월 2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8월 31일 제주에서 열린 '2006 4G포럼'에서 삼성전자가 4G 관련기술 공개시에 성공하면서 관련업체들은 기존의 통신세계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의 세계로 나가 제2의 인터넷혁명을 이뤄내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정보기술을 포함한 방송 등 우리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컨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단순히 포털에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상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도 음성시장에서 데이터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휴대폰 보급률이 80%를 넘었으며, 이용자의 25%는 하루에 한번 이상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월 상용화에 들어간 와이브로((WiBro)는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를 충족하는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와이브로 상용화를 시행하고 있는 KT는 올 연말까지 서울 전지역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할 방침이며, 삼성전자와 함께 다양한 라인업의 단말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와이브로와 CDMA, 와이브로와 와이파이, 와이브로와 DMB 등 DBDM(듀얼밴드 듀얼모드) 단말기 출시가 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공간 및 서비스 차원에서 벗어나 제2의 인터넷혁명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KT의 홍원표 전무를 초빙하여 우리사회의 컨버전스 현상을 짚어보고 와이브로를 중심으로 한 IT사업의 미래를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469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9월 7일(목) 조선히텔 2층 오키드룸

# 참여정부,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이병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 세종대왕, 사대파 반대 뚫고 백년대계 구상, 나라 정통성 세워

좀 엉뚱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을 꼽으라면 아마 70~80%가 세종대왕을 꼽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북방영토 개척을 통해 두만강, 압록강을 경계로 사실상 오늘날 대한민국 영토를 완성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창제를 통해 우리 문화의 정수를 이루셨다. 그것이 오늘날까지의 정신적 토대, 문화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측우기를 발명한 장영실 등 과학기술자들을 육성하여 우리에게 맞는 영농기술을 집대성했다. 한편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을 통해 왜국을 징벌한 최초의 왕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마 세종대왕을 넘어설 역사적 인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최근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궁중의 비밀과 음모를 그린 팩션(fact-fiction) 소설 <뿌리깊은 나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소설 속에는 이른바 당시 천자의 나라인 명나라와 사대외교를 하면서도 최만리 등 사대모화(事大慕華)주의자들의 엄청난 음모, 꾀방을 뚫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의 끈질긴 자주정신 그리고 뛰어난 시대정신이 담겨 있다.

그렇다고 세종대왕이 자주론자만은 아니었다. 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은 명나라에 대해 지고지성(至高至誠)으로 사대를 다했다는 여러 표현이 나온다. 세종 3년과 5년에 명나라가 말 1만필과 2만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 당시 말 1필이면 기마병 1만 명 격이었다. 그리고 세종 14

년에는 소 1만두를 보내라고 했다. 소 1두는 농가 한 채 격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처녀들을 공녀로 보내라고 했다. 결국 세종은 신하들의 극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다 보내도록 했다. 공녀를 보낼 때는 한양에 눈물바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 이면에서도 세종은 왕조의 백년대계를 위해 김종서 장군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토를 확장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단군사당을 건립하여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조선은 천자가 분봉한 제후국가가 아니라는 정통성과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조선 자체 역법인 칠정산(七政算)을 완성했다. 당시 역



법은 중국에서 받아와서 써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조선에서 만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중심의 표준시를 조선 중심의 표준시로 만든 것이다. 명나라에 대한 혁명적 발상이었다. 그래서 세종을 자주론자로 보고 실용과학의 문화를 일으킨 대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사대모화주의자들과 개혁적인 집현전 학사들간의 극렬한 저항과 대립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리얼하게 그려져 있어서 소설적 재미도 크고 역사적 팩트에 대한 새로운 모색도 하게 되었다. 역사에 있어 가정은 금물이라 하는데, 세종을 이은 문종과 단종 사이에 한 임금이라도 세종과 같은 발상, 인식, 시대정신의 역량을 가졌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소설이었다.

### 진보·보수를 떠나 통합적 시각으로 정부 바라보아 작통권 환수, 극단적 선동이나 음모론으로 몰아서는 안돼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참여정부가 시작된 뒤 정부를 보는 시각이 아주 극단적이다. 한쪽에서는 참여정부를 좌파, 친북, 반미정권이라고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친미, 굴종, 사대주의, 반노동자, 반민중정권으로 매도한다. 이른바 우리사회의 극단적 시각들, 극좌·극우적 시각과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요, 그 분들이 그 분들이다. 때로는 몇 백, 몇 천명씩 몰려다니며 한쪽에서는 성조기를 흔들며 대고, 한쪽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한미FTA 체결 등이 현안이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게 참 안타깝다. 여론은 현시점에서 보면 대개 5대 5이다. 여론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극단에서는 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는데, 그 반대가 너무 극단적이다. 왕권시대에도 대명관계를 놓고 왕과 신하, 신하와 신하간의 극렬한 대립이 있었다. 하물며 민주화된 자유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여정부가 건너야 할 역사의 다리, 시대의 다리, 민주주의 발전의 코스트라고 여기고 위안을 삼는다.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렇다. 자기나라 군대의 작전통제권이 군통수권자에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원론적인 자주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과 7~8위권으로 평가받는 국방력을 가진 한국군의 작통권이 2만 5천명의 주둔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국민적 자존심을 찾자는 감성적 이야기도 아니다. 얼마 전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말한 북한의 실제적 군사력이 남한에 현실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북한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시간은 한국의 1/10 수준이다. 한국군 조종사 한 명이 1년에 170시간 훈련을 하는데, 북한은 15시간 미만이다. 전투기도 50년대 제작된 기종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우선 기름이 없어서도 훈련을 못한다. 이런 현실적인 남북간의 국방력 차이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군사적 모험성이나 정권의 모호성 그리고 불규칙적인 행동 때문에 남북현실은 대치현실, 북한의 남침위협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음모론'이다. 작통권 환수를 참여정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들고 나온 정치적 음모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작통권 환수는 잘 아시다시피 20년 전인 1987년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다. 그렇다면 노태우 후보가 그 당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작통권 환수라는 국가주요과제를 내세웠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런 식의 음모론이라면, 작통권 환수가 국민의 자존심, 국가의 자주성의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것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그 때 그 정권이었다. 그걸 지금 자주를 팔아서 국민 자존심을 팔아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퍼트리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94년, 평시 작통권 환수가 성사됐을 때, 군 수뇌부들 앞에서 오늘이야말로 '제2의 창군일'이라고 하면서 곧 전시작통권



까지 다 환수해야 된다고 했다. 이 이상 국민적 정서를 감정적으로 자극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당시의 언론 사설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주권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전시작통권도 빨리 환수하는 게 좋다' 등 모두가 찬양, 고무, 격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뭐라고 하는가. 그때는 안보가 불안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보가 불안하다고 한다. 94년이 어떤 해였는가? 93년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그래서 유엔안보리가 핵사찰을 결의했다. 94년 6월에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마저 탈퇴해 이른바 '서울불바다' 소동이 벌어졌다. 그리고 미국의 북폭계획이 떠돌던 시대였다. 이른바 한반도의 긴장, 한반도의 불안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그럴 때 나온 것이 작통권 환수이고, 제2의 창군일이고,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이야기들이었다.

### 작통권 환수는 20년을 걸쳐 준비한 국가과제 경제·군사력에 걸맞는 나라 만들기

참여정부가 환수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2003년 5월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10년이면 환수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서를 올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미간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은 대통령께서도 몇 번을 이야기하셨다. 또 국방부에서는 국회에 수시로 보고해서 한나라당도 알고 국방위원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소동을 일으켰는데, 엉터리 같은 음모론 때문이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노무현정권이 작통권 환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정치를 해서선 정권을 못 갖는다. 국민수준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대통령이 되든 정치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국민의 의식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같은 정략적 태도가 여론에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되자 일부 보수신

문들이 국방비 문제를 건드리라고 부추긴다. 이른바 '국방계획 2020'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방계획 2020이란 것은 합참과 국방부가 2020년까지 국방계획을 통해서 국군을 정예과학교육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장기 로드맵이다. 이 기간까지 총 투여되는 게 621조원이다. 이 재정은 중국방비 개념으로 병사월급, 군복무 기간 단축, 일반사병보다는 간부육성, 첨단무기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작통권 환수하려니까 이만큼 돈이 드는데, 이 돈 어떻게 할거냐고 나온다. 작통권과 국방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가면 625조 내지 630조가 들어가는 반면에 국군의 정예화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을 작통권과 교묘히 연결해서 가려다가 정부가 사실을 해명하자 쑥 들어간 상태이다.

작통권 환수는 우리 군이, 우리 정부가 20년을 걸쳐서 준비해온 사항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자기나라가 가지고 있다가 6.25때 일시적으로 넘겨줬던 작통권을 다시 돌려주지 말라고 국회의원들이 미국으로 가서 뭘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94년에 작통권 환수했을 때는 격려, 고무를 했던 신문이 갑자기 반대를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한국의 정치양태를 봤을 때 특히, 한국에 대해서 편견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참으로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이다.

한미관계는 결국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한국의 역량과 위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해 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과거 냉전시대를 거치고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룬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결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7~8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21세기 한국에 작통권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우리가 환수계획을 세운 것도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 한국경제는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통해 발전해와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모두 망해

같은 구조 속에서 한미FTA협상을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도 마찬가지로이다. 한미FTA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니 극단적 반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다. 을사늑약이 뭔가. 민족의 배신자들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다. 그 때 1조 1항이 '조선은 자주국이다'였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다 불평등조약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 침략의 서곡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이보다 20년 앞선 1854년 미국의 메튜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의 무력시위에 놀라 개방을 했다. 결국 20여 년의 차이가 조선이 일본 식민지로 추락하는 비극의 시간이 됐고, 40여 년간 식민지, 남북분단과 전쟁, 남북대립이라는 한반도의 운명을 정해버린 셈이 됐다.

역사적으로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모두 망했거나 망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개방한 나라는 대부분 흥했다. 경제개방뿐만 아니라 제도개방, 종교개방, 문화개방, 인종개방까지 한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모두 흥했다.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 사실상 그 동안의 개방은 압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때마다 나라가 요동을 쳤다. 옛날에 바나나 수입 개방했을 때 대한민국 과일은 다 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사과, 배가 얼마나 비싸졌는가. 일본문화 수입 개방한다고 1차, 2차로 나눠서 개방했다. 그때 외색문화가 도배할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류문화가 일본, 중국, 아시아를 넘어서 전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한?칠레FTA를 체결할 때 우리나라 포도 등 과수농사 다 망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값만 더 올랐다. 유통 개방하면 월마트, 까르푸 등이 다 지배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국내 토종 유통세력에 의해서 둘 다 떠났다. 모든 것이 그렇다.

단지 자만하거나 낙관주의적 시각으로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경쟁을 통해서 한국사회와 한국경제가 성장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 한국사회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뜻이고, 중국,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 언론은 사실을 보는 창

### 그 창이 왜곡되면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가

찬성 못지 않게 반대, 우려. 중요한 말씀이다. 정부가 모두 옳을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나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 아무리 정권 말기 여론이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고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고, 명암이 있어서 공정히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돕는 게 언론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언론들을 보면 시각들이 다양하다. 기사의 기본은 6하원칙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일부 기사는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쓴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면서 비판하고, 자기주의·주장만을 위한 기사, 사실식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사실을 보는 창일 수밖에 없다. 창이 흐리거나 공정하지 않거나 왜곡돼 있거나 굴절돼 있으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의식까지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실과 공정성을 벗어나서 언론사가 기업으로서의 이익에만 급급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해진 주의, 주장을 위한 기사만을 생산한다면 그것은 이미 언론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탄생을 애초부터 반대했던 반노무현 언론이 몇몇 있다. 그러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원을 낭비해서는 곤란하다. 정권이야 5년마다 심판 받고 선택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하는 말 중에 몇몇 신문들은 불문을 또는 영업전략이 있는데, 하루에 4건씩 정부 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제작하는 것이다. 1면에 1건, 해설면에 1건, 칼럼으로 1건, 사설로 1건 등 보통 4건을 다룬다. 우스개 소리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

오고 있었다. 문제는 결국 이런 제작, 편집방향이 언론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일이다.

## 무조건식 정부반대는 독자 신뢰 잃고 국민 무시하는 것 품격있는 언론이 민주주의 발전 이끌어

얼마 전 기자협회가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사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영향력 1위는 KBS, 2위는 조선일보였다. 그런데 신뢰도 1위에서는 '신뢰할 만한 신문사나 방송사가 없다'는 것이 45%로 1위였다. 그래도 신뢰도 1위가 어디냐 물었더니 1위가 한겨레, 2위가 KBS였다. 문제는 기자들 스스로 자기들의 세계에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1위라는 것과 메이저 3사의 신뢰도를 합쳐 놓은 숫자가 한겨레의 신뢰도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결국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영향력이 높아질 때 대한민국 언론과 민주주의가 같이 발전하는 것이다. 언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참여정부가 얼마 전에 '비전2030'을 발표했다.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 세대 앞을 보는 비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이다. 나는 거기서 왜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냐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찾아봤다. 그걸 발표하고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한 신문 사설에서는 '허황된 미래상으로 국민을 현혹하려는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또 한 신문에서는 '좌파 30년 집권 겨냥한 복지 포퓰리즘'이 사설 제목이었다. 이런 제목은 80년대에 나뉘던 대자보 제목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대학 진학률이 82%로 세계최고이다. 그런데 누가 현혹된다는 것인지, 누가 좌파정권의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믿는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국민수준을 이 정도로 내리 깔아보면서 세상을 주재하듯이 사설을 쓰니 정말 비극적 코미디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권력보다도 언론권력의 영향력은 크다. 그래서 언론이 품격있고 공정하고 투명해지면 그만큼 우리사회, 우리국가에 품격도 올라가고 공정해지고 투명해져서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언론환경이 있다. 그래도 대다수 기자들이 끊임없이 언론의 정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는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국민의 알권리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는 기자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언론과의 어떤 긴장,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편에선 또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데 잘못 폄하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마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여름 참 더웠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다. 저는 평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선풍기 바람이 일시적으로는 땀을 씻어주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역시 부채질을 계속 하면서 넘길 때 여름은 진득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을 쥐고 있는 부채질이라면 적어도 선풍기나 왜곡하는 선풍기에도 곳곳이 맞설 수 있고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人間**

# 지역특성화로 동북아 중심대학을 꿈꾸는 인천대

박호군 인천대학교 총장



사진 오경근 원장

“중국의 관문인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중국의 언어뿐 아니라 문화, 역사,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최고의 중국전문가를 양성할 생각입니다.”

1979년 개교해 1994년 시립대로 전환한 인천대가 2009년 국립대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15년만에 또 한번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체 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었던 인천에 국립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특수법인 전환은 국내 최초의 사례이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04년 7월 부임해 20여년 간의 숙원사업을 이룬 박호군 총장은 송도국제도시로의 캠퍼스 이전과 국립대 전환을 계기로 알차고 강한 대학을 만들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구상에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시 교수연구비를 두 배로 늘려 침체된 기관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박 총장은 인천대 부임 후에도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 지역도 살리고 낙후된 인천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인천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동북아 중심대학으로 거듭날 인천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박호군 총장을 만나 인천대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향후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가개발연구원 회장)

## 박호군 총장

1947년 생으로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박호군 총장은 美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원장을 역임한 박 총장은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제5대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고 2004년 7월 인천대에 부임해 대학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인천대가 2009년부터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새출발하게 됩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말씀해주시죠.**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16개 광역자치체 중에서 국립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인천의 학부모 74% 이상이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하겠다는 결과가 말해주듯이 인천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국립대 전환은 인천대가 고등교육에 대한 선도 역할을 할 거점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 인천에 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사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인재양성 및 학·연·산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있는 국공립대학교 법인화를 가장 먼저 시행하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3년 지역 내에서 국립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듬해 3월, ‘인천대학교국립화법시민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도 물론 총장 취임 전에 공동의장으로 참여 했었죠. 그 해 7월에 대통령께서 인천을 방문해 국립대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제 7월 말에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5년 4월에는 인천시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천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죠. 전체 인구의 절반정도인 130만 명이 단 보름만에 서명에 참여하신 것만 봐도 낙후된 인천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대 전환과 함께 2008년까지 송도국제도시로 캠퍼스를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신캠퍼스 건설계획 등 이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에 확정 지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데, 새로 건설되는 캠퍼스는 총 15만평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캠퍼스는 도심형, 개방형 캠퍼스로서 환경친화적이며 첨단 교육환경이 구비된 21세기형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인천대는 국제도시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의무감마저 들어 보이는데요. 대학의 특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총 120만여 평의 첨단산업단지로서 지식정보단지 80만여 평과 바이오단지 40만여 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지에는 IT·BT 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85개 업체가 입주해 산업인력 수요가 급속히 창출되는 곳이죠.

인천은 중국과 인접한 도시로서 100년 전부터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며,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중국과는 일일 생활권에 있는 지리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서의 물류산업과 통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또한 주위의 아름다운 섬들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자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인천대는 국립대 전환과 송도 이전을 계기로 인천의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면서 작지만 알차고 강한, 특성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국에 대한 특성화를 계획하고 있어요. 언어, 문화, 역사, 예술뿐만 아니라 중국관련 통상, 물류, 법률 등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강점인 물류, 통상, 관광 분야의 특성화와 더불어 송도국제도시에 필요한 첨단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IT, BT뿐만 아니라 NT분야의 이공계 특성화도 힘을 계획합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음악대학, 약학대학 등의 설치와 1883년 개항 이후 많은 분야에서 ‘최초’ 수식어를 달았던 인천의 뿌리를 연구하는 인천학 연구의 특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대학들도 송도 신캠퍼스 건립이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이전하는 대학들 중에서 학교 전체가 이전하는 대학은 우리가 유일해요.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은 교양학부를 설치하거나, 일부의 연구기능 또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캠퍼스는 송도경제자유구역 15만평 부지에 5만평의 현대적 첨단



▶ 인천대학교미래관

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송도로 이전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의 인재육성을 위해 철저한 특성화를 추진할 것이며, 국제산학협동의 활성화와 외국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 공동학위제를 시행할 겁니다. 또한 외국 우수 대학의 분교를 유치해 인천교육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인천시와 협력하여 외국 대학의 우수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면 인천은 교육의 메카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 국립대학의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대응이나 비전설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천대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에 국립대학 고유의 기능을 계승하면서 대학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대학경영에 따른 책임이 강조되는 국립대학 특수법인의 성공을 위해서 첫 출발하는 인천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국립대학 특수법인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발 대학으로서 준비과정이나 출발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책임질 새로운 체제의 대학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된 '국립대 전환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립대학 특수법인 체제 전환 준비를 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곧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 될 겁니다. 이와 동시에 연구, 교육, 행정, 인프라 혁신으로 2016년까지 세계적 지성의 요람으로 비상한다는 원대한 계획 아래, 2008년까지 교육 프로그램 혁신, 연구지원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송도캠퍼스 조성 과 더불어 교육기반을 튼튼히 하고 2016년까지는 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연구의 세계화를 달성해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더 심한데요. 인천대만의 대비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청년실업율이 7.1%인데 인천의 경우 9%가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90년대부터 진행된 수도권 인구억제, 공장설립 억제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인천지역에는 변변한 산업이 없었어요. 인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는 이제 대학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도 동북아 중심의 국제화, 일류화를 지향하며 국제 인력양성 분야에서 특성화를 이루고 국립대 전환과 송도 신캠퍼스 이전 등을 통해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직상의 취업률을 위한 단기적 목표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저학년 중심의 진로 설계에 보다 집중하는 장기적인 인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먼저, 담임교수제도를 통해 학생 개개인별 진로 설계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 개발을 위해 전공교수의 지도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천의 수출 중심의 지역적 기업 특성에 맞춰 국제 일류 인재개발을 목표로 경인지방노동청과의 제휴하고 지역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는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고민 상담과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기업별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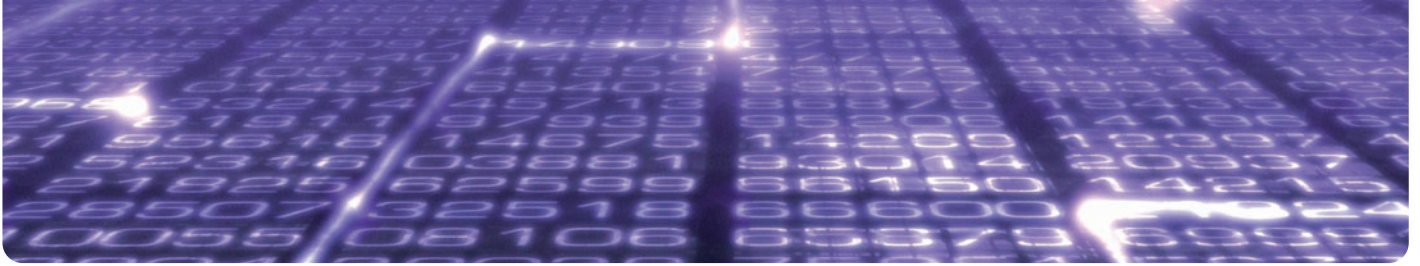
### 총장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과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는 등 인천을 대표하는 과학자이십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오로지 기대할 것은 인력일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인력은 일국의 장래를 결정짓습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수한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제도 는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 학생들에게는 해외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죠. 또 4학년생들에게는 기업체 인턴제도를 두어 실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년부터는 공학인증제를 시행하여 검증된 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10년 후 인천대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0년 후 인천대가 어떤 모습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답은 인천대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천대는 1979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로 탈바꿈한 것이



1994년 3월이죠. 이제 다시 국립대로 전환하는 시기가 2009년 3월입니다. 꼭 15년에 한 번씩 큰 탈바꿈을 한 거죠. 아마도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한 번 예측해 보세요. 15년 후인 2024년에는 인천대가 분명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때는 확실히 서울대와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대학이 되겠지요. 그리고 인천의 교육 수요, 문화적 공백을 채워주는 새로운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인재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명제는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학의 수장으로서는, 저희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대한 총장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지난 31년간 인간개발을 위해 노력해오셨지만 인재양성은 국가의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대학에 있어서도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자양성과 창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양성, 그리고 인문, 경제, 사회분야의 인재양성이 그것입니다. 인문, 경제, 사회분야의 인재는 그 동안 우리사회가 많이 양성해왔어요. 그래서 제 관심은 학문적, 혹은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문적 리더들은 국내 우수한 대학들에서 양성하고 있으니 후발대학인 인천대의 경우는 학자보다는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수들에 대해서는 교육과 연구 양쪽 모두를 추구하게 만들어 인천대가 교육중심 대학에서 송도 이전 후에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CEO 총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리더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총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CEO 총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총장의 역할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총장은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어 내 학교라는 주인의식으로 기관의 운영을 책임져야 해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교수, 직원, 학생 모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하나씩 구성원들과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변화 추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에 맞는 감각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역할이죠. 또한 내부혁신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수 있는 혁신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는 교수와 교수, 직원과 직원, 학생과 교수 등 내부구성원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민주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역할이죠. 대학 총장은 사회적으로 행동 하나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 총장의 역할입니다. 총장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발전기금 마

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학운영비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쁜 대외일정을 소화하시려면 체력도 남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체력적으로는 건강한 체질이라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가볍게 등산을 즐기죠. 그 외에는 걷기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정도 학교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 작은 일까지 모두 챙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분야의 결정은 제가 하고 세부적인 집행은 부총장을 비롯해 학장, 처장들에게 위임하고 있죠. 일 처리도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모든 일을 반 보 앞서 처리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인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다거나 이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총장님께서도 강사로 참여하시는 등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31년 전부터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기업이나 우리사회가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연구원의 업적이 우리사회 발전에 빛나는 성과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연구원의 활동이 국가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열리고 있는 목요조찬회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인재개발을 위한 강연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온·오프라인상의 독서운동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오셨던 사회지도층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의 역량을 활용할 방법이나 기회가 없어요. 이 분들의 노하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컨설팅 등을 통해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원에서 마련해 주신다면 국가발전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연구원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함에 있어 도울 길이 있다면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 국내 IT인력 고급화 책임지는 지식보급소

여호영 (주)지아이에스 사장

## IT기술사,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것 시대흐름 읽고 스스로를 단련하기 시작한 것이 GIS의 시작

정부에서 배출한 각종 기술사만 국내에 약 3만 명에 달한다. 그 중 IT 기술사는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변호사 100명 보다 IT기술사 한 명이 더 중요해진 시대이다.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IT기술사에는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등이 포함된다.



(주)지아이에스(Global Intellectual Services)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IT기술사라는 생각으로 기술사 후배들이 품격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에 전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사들의 현장통용력을 더욱 발휘 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91년 설립한 지아이에스

는 KMC(Knowledge Management Consulting)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IT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난 16년간 IT기술사 600여명을 배출했다. 또한 오프라인 PCW(Partner CourseWork)프로그램을 통해 IT기술사의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아이에스는 국내 최초의 감리법인으로 금융, 공공부문, 교육분야 등에서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 동안 실적도 해양수산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은행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와 삼성전자, 한국IBM, 행정자치부 등에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신정보와 기술동향을 알리는 주간 웹진 '앵라포'를 발행하고 월간 'EXPERT'를 발간하고 있다. EXPERT는 뇌본자본사회의 중추 일꾼인 CEO 등에게 IT와 문화를 접목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IT는 우리사회의 중심축을 형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변화의 속도 또한 놀라울 정도이다.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초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IT중심사회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남보다 먼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를 단련시켰기 때문이지 모른다.

1972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전산실에서 군생활을 하던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했다. 80년대 초반에 국내 기업들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육사생도들은 70년대 초부터 컴퓨터 교육을 받았으니 대단한 일이었다. 당시 '펀치카드'를 이용한 포트란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보초를 서면서도 프로그램 관련 책을 들여다

### 여호영 사장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호영 사장은 IT기술사 양성을 위해 1991년 지아이에스를 설립했다. 그 동안 기업체 및 정부기관 등에 시스템 개발과 컨설팅 활동을 펼쳐온 그는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부회장, (사)기술혁신협회 부회장 등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을 구조화철학에 연결시켜 지식구조화 원리를 창안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추상화원칙은 고정된 지식을 비틀고 뒤집고 다른 것들과 뒤섞여 봄으로써 전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형화원칙을 적용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잘게 나누주는 분할통치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계층적 구조로 체계화하면 쉽게 본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면 새로운 지식창출이 가능하고 나아가 커뮤니케이션과 글쓰기 등에서 독창적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듯 지식구조화를 알면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나아가 문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인 결과물을 비즈니스에 접목시킨 것이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사업 성공비결이라고 생각한다.

### 미래의 꿈나무 육성을 위한 희망만들기 나 자신을 넘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

‘3.1절’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31세에 절망을 느낀다’는 뜻이다. 31세면 암기력 세대로 ‘쫓가리 지식’을 압축 주입하는 교육을 받았다. 학문의 인프라 없이 압축된 지식만을 조각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지식정보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에는 모든 지식을 양피지에 적어 전수해왔다. 양피지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휴대가 간편하게 조각을 나눠 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식이 다 토막나있는 줄 아는데 실은 지식간 거리 차가 있을 뿐 결국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전혀 다른 학문간 연계와 융합을 거치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탄생된다. 이처럼 학문간의 벽을 허무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국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사업 한편으로는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 오래 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희망 하나를 실현시킬 작업을 준비중이다. 바로 초등학교 고학년년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 수련원은 스스로 자각하여 동기부여를 갖게 도와 주는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미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것이 어찌면 지금 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경남 하동의 지리산 남쪽 자락에 부지를 마련해 현재 단지를 고르고 나무를 심는 1단계 조경작업을 10년째 하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인재를 어려서부터 키워나간다면 국가경쟁력을 위한 IT기술사 양성에 버금가는 사업적 성과와 함께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제의 내 미소는 이미 낡은 것이다. 오늘의 사회는 어제와 다르기 때문에 내 미소도 어제와는 달라야 한다. 변해야 한다. 때문에 매일 나는 새로운 웃음을 연습한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생활신조를 갖고 있는 나는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나 자신을 넘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일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각오로 임할 것이다. **人間**

봤다. 컴퓨터라는 신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회를 행운으로 생각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간절했다. 이 때의 인연이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해 리아드 건설현장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식보급소 지아이에스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 30대의 2억과 같은 시간관리 지식구조화 원리로 창의적인 지식 생산 가능해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 땅 한 평에 천 원짜리가 있고, 2억 원짜리가 있듯이 시간에도 단가를 매긴다면 아마 30대의 하루는 2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30대의 2억’처럼 시간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시간관리가 가능할 때 새로운 지식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카네기멜론대에서 수학하던 때, 학생증을 통해 매일 10볼씩 점심값을 쓸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10볼을 못쓰면 그 10볼은 영원히 날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점심을 할 기회가 많아 그날 나에게 주어진 10볼을 다 못쓰고 허공에 날린 경우가 많았다. 이 학교가 나에게 가르친 것이 하루 24시간을 제대로 못쓰면 그 시간이 영원히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나는 최근 그 동안의 경험과 깨달음을 토대로 ‘지식구조화’의 원리를 창안해 커뮤니케이션기술 및 리더십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지식구조화는 추상화원칙-정형화원칙-분할통치개념-위계적 순차개념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구조화철학에 객체지향 개념을 접목시킨 것이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 피카소의 추상화 감상법을 우연하게 들은 적이 있다. 구상에서 시작해 여러 단계의 추상화 과정을 밟으면 사물의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탄생한다는 것을 그 때 깨달았다. 바로 이 추상화 감상법

제500회 전남 장성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8월 24일(목)

#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지난 8월 24일로 500회를 맞았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1년간 개최되어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장성아카데미는 그 동안 전국 80여개 자치단체에 새로운 아카데미가 개강하는데 산파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성군의 혁신과 변화를 소개한 책 <주식회사 장성군>이 출간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공무원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장성군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성아카데미는 초기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교육비가 삭감되기도 했으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장성군에서도 명예의 전당 조성, 장성아카데미상 제정 등 '500회 기념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500회 장성아카데미에서는 손수익 전 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역대 강사와 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장성군>의 저자인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이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주제로 기념특강을 했습니다. 이에 강연 전문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장성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썼습니다만 사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 동안 구슬을 만들어 주신 장성 공직자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500회 특강에서는 그 동안의 과정을 평가해보고 장성군이 앞으로 어떤 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의 성공사례는 지난 1월 초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식회사 장성군>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함으로써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책이 출간된 뒤 지금은 행사부 장관이신 이용섭 청와대 혁신수석비서관이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참여정부가 혁신에 대해 3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혁신의 방법과 방향을 <주식회사 장성군>이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군의 이야기를 혁신수석비서관실에서 먼저 익히고 대통령께 보고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단숨에 보시고 전공무원들에게 일독을 권하셨습니다.

## 장성군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 명품 브랜드 자리잡은 장성아카데미

장성군의 핵심은 '장성군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장성의 혁신은 일하는 방식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최고'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CI와 BI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장성의 교육예산입니다. 2004년도 장성군 총예산이 1,655억 원인데 교육예산이 9억 원으로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예산은 장성보다 두 배나 많은데도 교육예산은 장성의 1/3 밖에 되지 않고, 1인당 교육비는 1/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모두 놀래요.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 책정 시 다른 예산을 모두 세우고 남은 돈으로 교육비 예산을 잡지만 장성은 반대로 교육예산을 먼저 잡은 뒤 나머지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장성군이 다르다는 겁니다.

장성 공무원들은 참 당당하다, 실력 있다, 품위 있다, 세련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장성에 중소기업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제가 책 쓰면서 인터뷰 해 본 분들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정부가 장성군처럼만 도와준다면 기업인들이 무엇 때문에 해외로 나가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장성군을 벤치마킹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생길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품브랜드로 자리잡은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요즘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지방에서 500회 동안 전국의 유명 강사를 모셔다 강연을 했다는 건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일이에요. 장성아카데미는 이제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 없는 블루오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아카데미가 저절로 생겼느냐. 김홍식 전 군수님이 시작하셨지만 장성아카데미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을 기리기 위한 필암서원(筆巖書院)의 역사만 봐도 우리가 장성을 ‘文不如長城(학문으로 장성만 한 곳이 없다)’으로 부를 만 합니다. 또한 청빈의 상징인 박수량 선생, 임진왜란에서 화차를 만들어 권을 장군이 행주대첩을 이끄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변이중 선생, 노사 기정진 선생 등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계셨기 때문에 장성아카데미가 태동했고, 그런 역사성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장성아카데미는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모델이 되었고, 공무원, 국영기업, 민간기업에서도 장성 사례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일본에서 <주식회사 장성군> 책이 곧 번역되는데,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원에서 중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성 사례를 얘기하면 다들 놀랍니다.

### 바람직한 리더십 승계를 통한 안정적 혁신 가능 溫故而知新으로 장성 재창조

그렇다면 장성군의 재창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저는 신임 군수님이 민선 4기를 맞아 무소속으로 군정에 입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정당싸움이 치열한 장성에서 인물을 보고 군수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장성군 주민들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결국 장성군은 리더십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로마인 이야기 리더십’을 이 자리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로마제국의 기초를 닦고 설계한 사람이 카이사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카이사르는 암살

당하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제국을 만든 거죠. 만약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카이사르는 암살 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후계자를 잘 만나서 카이사르가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장성군의 신임 군수님과 전임 군수님을 하나의 역사적 맥락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장성군도 천년제국 로마처럼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리더십전문가로서 장성군 리더십 승계의 특징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업인 출신→주식회사 장성군’ + ‘공무원 출신→실사구시 생활행정, 개혁적 마인드’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아우구스투스에게 부족한 점이 개혁적 마인드였는데, 신임 군수님은 공무원으로서 드물게 개혁적 마인드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군수님의 개혁·혁신마인드가 잘 구현된다면 장성군은 안정적 혁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장성군의 새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군정목표로 내걸고 경영의 원리를 중시하되 실사구시 생활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거나 그늘진 부분, 애정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피부에 다가오는 자치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림자를 보완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 빛을 따라가고 싶거든요. 군수님께서 10대 군정 방향을 발표하셨는데, 이 같은 기본전략, 비전을 가지고 재창조 전략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친환경 10만 신도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2020년까지 3차 5년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줄어가는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인구감소를 막는 것이 관건인데, 장성은 광주라는 인접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런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해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비전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지자체로 유명한 곳이 브라질의 꾸리찌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벤치마킹 합니다. 이곳 시장님 역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두 웃었지만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장성군도 꿈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둘째는 장성이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500억 원의 예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장성에 대해 큰 기대를 하게 합니다. 친환경 신도시를 만드는데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장성아카데미연수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장성아카데미를 명품브랜드로 장기화하기 위해서 ‘장성아카데미상’을 제정하겠다는 뜻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아카데미연수원을 설립해서 장성아카데미를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산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수원을 설립해 필암서원과 연계하면 고전과 현대가 만나는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하죠. 그리고 영어마을과 나노산업이 진행된다면 그곳에 과학인촌 같은 걸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금산군을 사랑하는 모임인 ‘금사모’라고 있어요. 장성에도 ‘장사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성아카데미에 다녀가신 강사들이 500여명인데, 이런 분들을 명예군수로 모시고, 그 동안 고향에

대해 잘 모르다가 최근야야 고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는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결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는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500만 장성관광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장성은 백양사, 홍길동 생가터, 장성호, 축령산 조림지 등 역사적 유적이 많고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 기존의 축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홍길동축제를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드는 혁신안을 찾아 문화관광산업 500만 시대를 열어가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섯째는 돈 버는 부자농촌을 건설해야 합니다.** 장성의 한마음공동체와 학사농장이 유기농을 대표하는 곳으로 성공했습니다. 한마음공동체 회원이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전국에 알려져 장성군이 유기농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유기농의 총본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서둘러야 해요. 장성사과가 맛은 좋은데 생산량이 적다고 합니다. 이것을 브랜드화하고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꽃감, 버섯 등을 육성해 장성하면 전국민이 알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전문가들과 함께 농민들이 참여한다면 분명 희망은 있습니다.

**여섯째로 장성이 가진 및 나노산업의 메카로 등장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장성군>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이 바로 기업이 장성에 몰려온다는 겁니다. 기업이 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업인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죠. 지난 2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해 장성이 기업 투자유치의 대명사로서 위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사실 4년 전 장성군에서는 나노의 '나' 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나노산업이 지금 장성으로 와서 나노산업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꿈을 꾸면 길이 생기게 돼요.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실 장성의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아카데미라는 꽃을 피웠고 나노산업도 유치했습니다. 나노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를 베이스로 해서 나간다면 장성군이 세계 속의 장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의 혁신브랜드를 상품화하는 겁니다.** 장성군의 재창조는 장성군 그 자체를 혁신브랜드화 하는 겁니다. 장성군의 혁신이야기를 사람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다른 곳에서 배우러 오게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 장성 스스로도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브랜드화 할 것인가. 지금까지 장성군이 해왔던 것과 신임 군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한다', 이걸 주식회사 장성군의 기본 모델입니다. 또 '기본과 원칙을 중시한다, 투명행정, 참여행정, 열린행

정을 실천한다', '실사구시의 생활행정을 펼친다'는 것도 하나의 혁신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것은 이미 장성아카데미 500회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팀제의 활성화로 협조성과 창의성을 높인다', 앞으로 이와 같은 틀 안에서 팀제의 활성화, 협조성과 창의성도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성군은 모든 일에 마스터플랜을 세운다', 이것이 장성군의 큰 자랑이고 행정의 자랑입니다. 얼마 전 다른 지역 군수님이 장성문화센터를 보고 충격을 받고 가셨습니다. 장성은 마스터플랜 아래 홍길동체육관, 노인회관, 아카데미하우스 등을 만들었는데, 자기 고향은 모든 면에서 장성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장성의 마스터플랜 행정을 계속해서 브랜드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집행은 소신있게 한다', '장성군은 최초, 최고에 도전한다', 이걸 정말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최초, 최고에 도전해서 뭔가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반드시 평가한다', 평가가 있어야 발전합니다. 외부의 평가는 합리적이죠. 장성이 잘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못한다면 오지 않

습니다. 장성은 이미 노출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주민들 모두 훌륭한 줄 알아요. 이것이 외부에서 장성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혁신모델로 만들면 장성군은 영원히 발전함과 동시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 장성의 또 다른 10년, 꿈과 비전, 목표를 갖고 실천해 나가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장성의 또 다른 10년은 역시 장성군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는 꿈과 비전, 목표가 중요한 거죠. 20 : 80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 20%는 열심히 하지만 나머지 80%는 대충 한다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충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교육을 싫어합니다. 95 : 5의 법칙은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의 95%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가진 5%에 더 큰 무게를 둔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가진 95%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생기지만 부족한 5%에 치중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장성군에 대해서도, 장성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성군에도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장성군 사람들이 훌륭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장성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힘을 합치면 세계 속의 장성으로 우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다른 10년, 1000회를 향해서 다음 주부터 501회라는 구슬을 깎아가야 합니다. 장성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칠 것입니다. (人間)



# 리더십의 위기시대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나는 매일** 아침 성경과 같은 지혜의 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며칠 전부터 나의 기도제목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추가되었다.

우리는 지금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위기에 놓여 있음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 대만에서는 천수이벤 총통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퇴진의 급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다. 태국의 탁신 치나왓 총리는 최고부자의 자리에서 정치계 최고의 자리인 총리 권좌에 올라 잘 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신뢰를 잃고 위기에 몰린 가운데, 9월에 개막된 UN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 손터 총사령관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로 실각하고 말았다. 그는 현재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 최고의 자리인 총리에서 한낱 실직자로 전락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아침(9월 22일),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헝가리 최고 지도자의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의 함성이 지구촌 곳곳에서 설새 없이 터지고 있는 리더십의 위기에 경종을 울린다. 9월 15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워싱턴에서 생산해 낸 뉴스가 모든 신문을 도배하듯 대서특필로 지면을 채워 노무현 대통령이 당면한 리더십의 위기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장이 무슨 말실수를 했기에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변호사회가 대법원장의 퇴진을 외치며 성명발표에 나서고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난맥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리더십의 위기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정치의 권좌에 오른 사람들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장 안정된 삶의 처소인 가정은 물론 직장과 사회 도처에 리더십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영혼의 안식처라 할 수 있는 예배당과 사찰 같은 종교사회에도 리더십의 위기는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도 가정과 사회에서 들끓기 시작한 리더십의 위기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범사회적으로 폭발하는 리더십의 위기 현상은 우리나라의 사회현상만은 아니다. 범지구적으로 일어난 인류사회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처럼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몰고 왔을까. 지금까지 우리 인간사회를 지배해 왔던 가치들은 권력, 금력, 명예, 유행, 쾌락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권력과 금력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다. 권력과 금력만 있으면 그 외의 모든 가치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 정보, 통신, 기술 등이 일으키는 변화의 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혁명시대를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변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마음가짐(태도)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바꾸고 행동 즉,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자세와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변혁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곡차곡 담아가야 한다.

새로운 가치들이란 어떤 것들인가. ‘위대한 도덕적 이야기들의 보고’라는 부제가 붙은 <The Book of Virtuous>의 저자 윌리엄 J. 베네트는 책임, 용기, 동정심, 충성심, 정직, 우정, 인내, 근면, 자율, 신앙 등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훌륭한 사람됨의 특성들이라고 했다.

지난날의 전통사회를 지배해왔던 권위주의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새로운 리더십의 시대 즉, 섬김의 리더십 시대로 바뀌고 있다. 베네트가 지적한 대로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타인을 지배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성숙한 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지금의 리더십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믿는다.

한국LMI가 1990년 이래 개발해서 보급해온 ‘효과적인 퍼스널 리더십(EPL)’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함께 한 ‘LMI 리더스 데이’가 지난 21일 저녁에 있었다. 이 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의 “섬김의 리더십” 강의는 바로 리더십의 위기시대가 제기한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된다. 이 총장의 강연은 리더십 결핍 시대를 극복해 가는 해결책을 제시해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인 EPL수료자들에게 큰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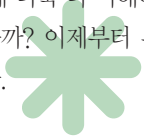
새로운 리더십의 혁명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제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독자 여러분도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 말을 재미있으면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마음의 틀’을 바꾸어 보자. **人間**



# 건강, 체험을 넘어 나눔으로

송병순 (주)아리코 회장

지난 4월 중순, 필자는 부주의로 계단에서 낙상해 안면부에 심한 찰과상을 입은 적이 있다. 스무 바늘이 넘는 봉합 수술이 있었고, 담당의사는 실밥제거를 위해서는 최소 3주 이상이 필요하다며 요양을 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필자는 불과 3일 만에 실밥을 제거했고, 이후 연고를 바르는 치료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회복해 나갔다. 주변에서는 그저 놀라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고, 담당의사조차도 청년들을 치료할 때도 보지 못했던 경험이라며 팔손을 바라보는 필자의 연령을 감안할 때 더욱 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제부터 본인이 습득한 그 비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 건강한 단계와 병에 걸린 단계의 경계가 '미병(未病) 미병의학에 주목한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

당신은 건강한가? 다소 도발적인 이 질문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 즉,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양단간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네 몸과 마음의 상태가 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인가?

동양의학에 '미병(未病)'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건강상태를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해 볼 때 건강한 단계와 병에 걸린 단계, 그 양극단의 중간 단계로써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병에 걸리거나 하지는 않은



경계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미병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이를 주제로 한 연구에 몰두해 온 이가 바로 <미병의학>(일본 마호로바 출판사)의 저자 하루야마 시게오(春山 茂雄) 박사이다. 하루야마 시게오. 그가 누구인가? 국내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얻은 바 있는 <뇌내혁명>을

쓴 유명한 저술가이자,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접목으로 일본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의료인이 아닌가. 1940년 일본 교토(京都)의 한의학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8세 때 이미 침술사 사범 자격을 획득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으며, 동경대학교 의학부에서 서양 의학을 익혔다. 그리고 1987년 동경인근의 가나가와(神奈川)현 아마토(大和)시에 263명 상 규모의 전원도시후생병원을 개원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동·서양 의학을 융합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루야마 박사가 그의 저서 <미병의학> 등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과 병자로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미병 단계의 사람들에게 병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면역력을 키워 자연치유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성장호르몬 분비 유도하는 'THE 21' 프로그램 가압트레이닝 통한 성장호르몬 분비는 면역력 키우고 자연치유력 향상시켜

매스컴 덕분에 대체의학이나 예방의학을 비롯한 웬만한 의학용어는 익숙한 여러분들에게 면역력이나 자연치유력 운운은 어쩌면 맛있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하루야마 박사가 면역력과 자연치유력 개선을 위해 제시하는 실천적 대안인 'THE 21(Total Health Engineering 21)' 프로그램이다. 이 실천 프로그램이 서두에 언급한 본인의 경험을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이다.

하루야마 박사가 2004년 9월부터 자신의 전원도시후생병원 근처에 전용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THE 21'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혈관연령, 골밀도 등을 비롯한 기초체력 측정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가압 트레이닝'으로 불리는 독특한 운동법에 이어 '수중보행'과 '메디컬마사지', 그리고 '명상'으로 구성된다. 우연한 기회에 이 프로그

### 송병순 회장

1926년 생으로 한국해양대 조선학과를 졸업했다. 전남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송 회장은 그 동안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국민은행장, 은행감독원장, 한국보험공사 사장, 광주은행장, CDIB&MBS 벤처캐피탈 대표 등 금융권의 수장을 두루 거친 전문경영인이다. 한편 지난해 친환경, 저비용, 고품질 도로용포장을 내세운 아리코를 창립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다.

램을 소개받은 필자는 작년 초 일본을 방문해 전용센터에서 약 한 달 동안 'THE 21'의 전 과정을 체험했다.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키우기 위해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HE 21' 프로그램을 체험했을 때 본인은 속으로 '바로 이것이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때 받은 강렬한 인상은 귀국 후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켰고, 일정한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수중보행이나 메디컬마사지 등을 제외한 '가압 트레이닝'을 계속 실행에 옮기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가압 트레이닝'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온 필자는 이제 여러분께 이 소중한 건강법을 강권하여도 될 듯한 확신이 들어 이렇게 펜을 든 것이다.

'가압 트레이닝'의 방법과 원리는 먼저 양팔과 양다리 중간부분을 신축성 있는 밴드로 묶은 후 약 10여분간 팔다리의 근력운동을 실시한다. 이 때 압박 정도는 이 요법의 요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특수 측정기를 통해 각 개인에 적합한 수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측정 과정 없이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근력운동을 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요령은 절대 땀을 흘릴 정도로 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땀이 날 정도가 되면 체내에는 활성산소가 축적되고, 활성산소는 우리 인체의 노화와 직결된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듯 가벼운 근력운동으로 인해 팔과 다리 끝 부분에 허혈(虛血) 즉, 조직의 국부적인 빈혈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신체에 발생한 고통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 뇌는 비상상태를 해결하고자 막힌 곳에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한 성장호르몬을 준비한다. 이 때 묶었던 밴드를 갑자기 풀어 주면 허혈상태의 조직으로 급속도로 퍼져 가는 혈액과 함께 막대한 양의 성장호르몬이 온몸에 순환하게 된다.

성장호르몬은 알려진 바대로 20대 중반 이후 점점 분비량이 줄어들어 70세 정도에 그 분비가 중단되는 물질로서 결체조직, 콜라겐 등을 증가시키며 근력을 강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성분의 분해를 촉진하며, 척추의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성인의 키가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며, 골절의 위험을 줄여준다. '가압 트레이닝' 시 발생하는 성장호르몬의 양에 대해, 50세 대상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약 100배에서 300배 가량 많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센터측은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압 트레이닝'의 효과적 기능들은 결국 인체의 면역력을 배양시켜 신체의 이상 징후에 대한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동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나가이 료조(永井良三) 원장은 2004년 12월 허혈순환생리학 특별강좌를 통해 "환자에 대해 항상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만을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진정한 의사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진정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압 트레이닝'과 같은 요법을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특별강좌에 직접 참가해 듣게 된 나가이 료조 원장의 자신감 가득한 '가압 트레이닝' 추천은 개발된 지 얼마 안 되어 그 존재와 효능에 대해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었던 필자에게 확실한 보증서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에 힘을 얻어 앞서 말한바 대로 직접 'THE 21'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한국에서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면 건강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그 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분이 필자의 권유를 받아 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예전의 건강을 회복한 경우를 수 차례 접하면서 하루야마 박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 분들의 건강에 본인도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미소 지었던 순간이 많았다. 주변에 효험을 보신 분들이 늘어갈수록 필자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조금만 심정에 빠빠지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다. '가압 트레이닝' 요법, 'THE 21' 프로그램을 건강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좋은 계기를 마련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또한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많은 이에게 전파하는 기쁨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런 심중 속에 지난 연말 회소식을 접했다. 하루야마 박사로부터 'THE 21' 전용센터와 같은 시설을 한국에도 개원하고자 한다는 전갈을 받은 것이다. 마침 올해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외국의 의료법인과 부대시설의 영입이 국내에서 가능하게 되는 등 'THE 21'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해 보였다. 특히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조화시키면 더욱 효과적인 시술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제주 산방산온천 근처에 시술센터를 세우는 안을 확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일이 진행되어 갔다. 산방산온천은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좋은 수질을 가진 천연 탄산온천으로서 철분과 칼슘성분이 풍부하고, 수온 역시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아 'THE 21' 프로그램의 '수중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7월이면 어느 정도 기초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설작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전용센터 계획안이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는 등 행정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다소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사업이야 해당 사업가들이 잘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순수한 마음에 선후배 동료들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한 건강요법인 'THE 21'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가압 트레이닝'의 장점을 다소 급하게 설명한 듯하여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보고자 하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글을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서 개방적인 마음자세로 본인의 건강 체험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THE 21' 프로그램을 한번쯤 접할 기회를 갖고, 그리하여 각자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두서없는 글로 부끄러운 본인의 가슴이 조금은 위무될 듯 하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좋은 체험을 나누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人間**

# 회원&연구원소식



## ■ 회원소식

-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품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나화장박물관(관장 유상욱)**의 주최로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 한국의 화장 문화전'이 열렸다. 본 행사는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지난달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우리나라의 화장 문화를 최초로 소개하는 특별전이였다. 유 회장은 "상품 수출도 중요하지만 선진국 대접을 받으려면 문화 수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코리아나화장품이 세계에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관(관장 유상욱)의 주최로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 한국의 화장 문화전'이 열렸다. 본 행사는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지난달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우리나라의 화장 문화를 최초로 소개하는 특별전이였다. 유 회장은 "상품 수출도 중요하지만 선진국 대접을 받으려면 문화 수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코리아나화장품이 세계에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 **정림건축(명예회장 김정철)**의 청계천 문화관이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건설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2006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건설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 **기업은행(행장 강권석)**의 대표 인터넷주소가 지난 9월 18일부터 [www.ibk.co.kr](http://www.ibk.co.kr)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최초이며, 국내기업으로는 7번째로 ISO20000인증을 획득하였다. 금년 인증 획득은 그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차세대 시스템기반의 IT서비스관리가 국제표준에도 부합함을 증명해 과거로 평가받고 있다.

- **현대홈쇼핑(사장 홍성원)**은 이르면 10월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독자적인 화장품 브랜드 '리얼 판도라'를 선보이기로 했다.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리얼 판도라'가 내놓을 첫 번째

'작품'은 여성 화장품인 '매직 파운데이션 andN'으로 생산업체는 한국화장품, 애경, 페이스샵 등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UCL(엠티비봉)이다. 현대홈쇼핑은 대형마트 PB(private brand)와 달리 '리얼 판도라'의 판매망을 자체 유통망(홈쇼핑)뿐만 아니라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위해 우선 24개 인터넷 쇼핑몰과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과 일본 등 해외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선환 회원(순환인쇄 대표)**은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장인정신으로 인쇄기술개발 및 인쇄문화발전과 인쇄단체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지난 9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 **한국아쿠르트(대표 김순무)**가 뼈 건강을 지켜주는 부드러운 치즈맛의 정통 유럽풍 떠먹는 요구르트 '보네떼 퀵(bonete Quark)'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파골세포수를 억제하여 골다공증을 염려하는 여성들이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우유에서 추출해 흡수율이 뛰어난 천연 밀크칼슘과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CPP(카제인 포스포 펩타이드), 비타민 D3, OPB, 이소플라본 등이 함유되어 있다. 보네떼 퀵이라는 이름은 '뼈'를 뜻하는 'Bone'과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 'Eternel'의 합성어이며, 퀵은 숙성하지 않은 생치즈 형태를 말한다.



- **교보문고(대표 권경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주자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손잡고 책서비스(<http://book.daum.net>)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이 도서검색서비스는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도서 문헌을 직접 검색 할 수 있으며, 포털 최초로 오프라인 종이책의 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자 가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회사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검색 및 커뮤니티를 활용한 전자책 시장 기반 강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심 회원(주택문화사 사장)**이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년 시대신문사는 국내최초의 노인전문 주간신문으로써 지난 4일 국내 440만 노인들의 건강과 문화, 뉴스 등 노인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종합 정보포털사이트 '엔엔뉴스(www.nnews.co.kr)'를 공식 오픈하였다.

• **유진기업(회장 유재필)**은 레미콘 계열사인 동천아이디에스와 천안레미콘을 올해 안에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것으로 2개월 안에 합병이 완료될 전망이다.

• **대교(대표이사 송희용)**가 지난달 용산에 국내 최대규모의 서점 '소빅스문고'를 오픈했다. 소빅스문고는 대교의 문화사업에 대한 의지와 전략으로 매장 구성에서도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고객센터와 놀이공간 '소빅스존', 수유실 등을 과감히 전면 배치했다. 한편 소빅스문고는 '교육'이라는 대교만의 장점을 서점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참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 **故김석기(관동실업 회장) 회원**이 갑작스레 회원님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온화하신 성품으로 항상 타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뜨거운 학습열의를 지니셨던 김석기 회장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 소모임 소식

• **이중기업동우회 3그룹(화목회 / 회장 황석희)** 9월 정기모임은 지난 22일 하반기 आय회를 겸해 청평 양수발전소를 다녀왔습니다.

• **YCF(회장 김상래 / 총무 전병문)** 9월 정기모임은 지난 25일 청담동의 갤러리 루미에르에서 사진감상의 시간을 통해 교류와 문화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 / 총무 윤건우)**는 9월 월례경기를 지난 26일 한양C.C에서 가졌습니다.

## ■ 연구원소식

• **본원 장만기 회장**은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길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에 고문교수로 초청 받아 참석하였습니다.

• **본원 양병무 원장**이 9월 1일부터 1년 동안 숙명여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받았습니다.

• 본 연구원은 9월 25일 ~ 10월 2일까지 길림건축공정대학원 교수연구팀의 선진지 건축견학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연을 수락해주신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서두철 동원시스템즈 부회장**, 기업방문 프로그램을 협조해주신 **정림건축 김정철 명예회장**께 감사드리며, 그 외 **서울대 건축학부, 한양대 건축학부, 헤이리아트밸리 사무국**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중국길림성경외취업협회와 한중우호협력 협약식



중국길림성경외취업협회(단장: 길림성 노동사회보장청 신봉철 청장 외 9인)는 인간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한중 인력교류 사업의 장기우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9월 28일 롯데호텔 토파즈룸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측은 향후 한중 경제교류, 문화교류에 도움을 주고 취업세미나, 인재교류회, 인력자원 전시회 등의 진행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다산	윤영상 회장	10월 1일
(주)삼천리	이만득 회장	10월 1일
(주)성신신소재	임병문 회장	10월 1일
성부트레이딩(주)	차진영 사장	10월 1일
삼부해운(주)	김태인 회장	10월 2일
(복)해동재단	장찬기 회장	10월 2일
(주)두림환경	조달현 대표이사	10월 5일
한신전선(주)	김영재 사장	10월 10일
흥안실업(주)	탁재용 회장	10월 15일
광동제약(주)	최수부 회장	10월 16일
현대교역(주)	장남수 회장	10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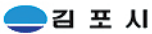
## ■ 지자체소식

### • 하동군 정보화 최우수지자체 선정



하동군(군수 조유행)은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 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에서 정보화지원, 정보화자격증 보유 실적 등 총 17개 평가에서 군단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그 동안 군이 정보화시스템 확충, 정보화 조직 및 인력보강, 주민정보화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한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 • 김포시 '신경제 새마을운동' 추진



김포시(시장 강경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경제 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추진하는 신경제 새마을운동은 한국경제 근대화를 이룩한 새마을운동 정신을 되살려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이다.

### • 장수군 국내 첫 거점산지 장수유통센터 완공



장수군(군수 장재영)이 농산물 유통의 변화를 선도할 '장수 거점산지 유통센터(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omplex)'를 완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APC는 사업비 188억 원을 투입해 장수IC 인근 1만 479평의 부지에 3천 119평 규모로 건립됐으며, 앞으로 장수를 비롯해 인근 진안과 무주, 남원, 익산 등지의 과일 및 채소류의 선별과 포장, 저장, 판매 등을 맡게 된다.

### • 평창군 효석문화제 성황리에 마무리



평창군(군수 권혁승)에서 개최한 제8회 효석문화제가 사상 최대인 관광객 67만 명 유치에 성공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효석문화제위원회와 평창군에 따르면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이번 효석문화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가산 이효석 선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를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 회원가입안내

###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 員 또는 전문직업인

### • 회원이 되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 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 •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 •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 (6인이상)

### •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2203-3500 · 팩 스 : 2203-1974



# LMI & YOU

## LMI 성공과 꿈의 동창들 열기, 명동 들썩



**9월 21일**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LMI EPL 수료생들의 만남 'LMI 리더스 데이' 행사가 열려 EPL 프로그램을 익힌 '성공과 꿈의 동창들'이 웃음꽃과 이야기꽃을 활짝 피웠다. 안효열 마스터코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장만기 한국LMI 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30년 전 폴 마이어와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자기 속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 마이어가 꿈은 성공의 키워드는 사람과 말(word). 선한 사람과 좋은 말이 가득한 오늘 이 자리야말로 성공이 예약된 자리란 암시에 좌중은 떠나갈 듯한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코너는 자못 진지해진 분위기를 풀어주는 와우박수. 박재완 숙명여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참석자들은 '와우', '부라보', '원더풀'을 연발하며 우의를 다졌다. 나이, 직위에 상관없이 예쁜 꽃, 아기의 웃음을 흉내내며 귀여운 척하는 상대의 모습에 좌석 곳곳에선 폭소가 터졌다. 이어 이동희 장군(오성연구소 이사장)의 가을분위기에 어울리는 시낭송이 이어지자 이 장군의 노익장 감성에 모두가 감탄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의 "리더십은 섬김이다"라는 강연이다. 이 총장은 자타공인 리더십 9단. 이미 EPL을 수강했고,

10월 중 파실리테이터 과정도 들을 예정이다. 이 총장은 "섬김리더십은 품사로 치자면 명사가 아닌 동사"라며 진정한 서번트가 되기 위해선 실력, 성품, 건강 등이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량을 갖췄어도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없다"며, "자신을 사랑하고 · 늘 감사하고 · 개방적 사고를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로열티 마케팅>(정명숙 저), <CEO의 습관>(김성희 저)을 참석자 전원에게 선사하는 '책 선물' 시간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 가상 시상식으로 재구성해본 행사 이모저모

◇최연소 EPL수상자 탄생 = EPL의 효과는 대대로 이어진다! 정유성 우담 사장은 임신중인 아내와 함께 EPL프로그램을 들으며 엄마 아빠가 같이 태교했다고 전격공개. EPL수료생 중 최연소인 이 컷먹이 아기는 행사 내내 울지도 않고 방긋거리 아빠의 자랑이 괜한 것이 아님을 증명.

◇최우수 습관상 = 유용현 세원셀론텍 상무. 하루도 빠짐없이 적은 석세스플래너를 가져와 '적자생존(적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습관을 과시. 성공삶의 매뉴얼로 현업에 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생산성 향상상 = 정용희 육군 66사단 부사단장. 삶의 6대 영역 수레바퀴에 근거, 장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는 강약혁명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발표.

정리\_김성희 LMI 비전엔리더십연구소 소장

###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9월 6일(수) 가평에 위치한 육군 제66보병사단에서 부사단장 외 8명이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수료식을 마쳤다.

• 장만기 회장은 9월 11일~12일 1박 2일에 걸쳐 싱가포르에 위치한 Grand Hyatt 호텔에서 Asian Master Licensee Meeting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개강안내  
- 일 시 : 10월 25일(수), 오후 7시  
- 장 소 : LMI 강의실 (대청역 체신청빌딩 5층)  
- 마 감 : 10월 23일(월)

### ■ 한국엘엠아이 라이선스 Big Dream&Success 모임안내

• Big Dream & Success에서는 10월 16일(월) 오후6시 30분 김언호 한길사 사장을 초빙해 "책 읽기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제36차 월례모임을 갖는다.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안국동 교육장에서 KICKOFF 미팅을 갖는다.

• 10월 22일(일) 오전 9시 30분 불광역에서 북한산 등산모임을 갖는다.

###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www.lmikorea.com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동북3성의 중심을 꿈꾸는 吉林省 지리·역사적으로 가까워 교류증진 기대

정문호 동국산업(주) 부회장



▶ 제2회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대표단



▶ 지린연료에틸알콜공장 현황을 보고받는 대표단



▶ 지린시 경제개발구를 방문한 대표단



▶ 위항궁을 찾은 대표단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약 1시간 40분 후 동북3성 중에서도 중간에 위치한 지린성 창춘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끝없는 녹색색판은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3대 옥수수 벨트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후보다 15일 앞서간다는 그곳 날씨는 푸른 하늘아래 상쾌한 초가을이 분명했다.

## 거대한 개방의 바람이 부는 곳, 지린성

지린성(吉林省)은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성으로 인구는 약 2,700만 명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한(恨)과 애환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일제식민지 하에서 만주로 이주했던 사람들과 독립투사들이 함께 살았던 곳이며, 지금은 중국에 사는 조선족 약 200만 명 중 120만 명이 이곳 지린성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 만주지역은 동북3성으로 개칭되었고, 1979년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되면서 동남부지역 경제특구가 대외개방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자 동북부지역은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중국 고성장 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부는 동북부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21세기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동북지역 산업구조를 현대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동북3성의 중화학공

업기지를 재건하기 위한 대개발사업을 확정하였다.

지난 8월 3일 원자바오 총리는 지린성 창춘에서 낙후한 공업기지 부흥 회의를 주최하면서 동북부지역 부흥계획을 서부대개발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국가정책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제2회 지린·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움직이는 큰 흐름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폐쇄적인 옛 만주 땅에 중국의 WTO가입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거대한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지린성은 1998년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2005년 9월에는 충청남도도 우호협력 협의를 체결하였고 경상북도와는 우호적인 교류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한국 투자기업은 793개 업체가 6억 7,6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3대 투자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 지린성의 중심, 창춘

지린성의 성도(省都)로서 한때 일본이 세운 만주국(1932~1945)의 수도가 바로 창춘(長春)이다. 지금은 길림대학을 비롯한 우수대학이 모여 있으며, 중국 최초의 영화를 만든 창춘영화제작소가 이곳에 있어 교육과 문

본원은 2004년부터 중국 지린성 고위 공무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한국의 새마을운동경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거닐기 지린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린시경제무역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투자유치활동을 벌이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인선으로 본원은 지린성 지린시 협조로 중국정부 및 기업과의 교류와 중국 투자환경을 경험해보기 위해 9월 1일부터 5일까지 '한중경제협력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22명의 대표단은 제2회 중국 지린·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참가관과 지역 산업시찰 일정을 소화하고, 연구원과 지린시가 공동 주최한 한중경제협력포럼에 참가했다. 이에 대표단 참가기를 소개한다.

- 편집자 주

화의 도시가 되었다. 또한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기술개발구와 고신기술 개발구를 비롯한 4대 개발구가 위치한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대표단 일행은 9월 2일 열린 제2회 지린·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박람회장에 전시된 상품들을 둘러보았다. 그 중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도요자동차의 전시장이었다. 창춘이 중국 제일의 자동차공업도시로서 정부의 자동차공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산업시찰에 나선 대표단은 먼저 중국 최초·최대의 자동차 공장인 창춘제1자동차그룹을 둘러보았다. 1956년 완공된 이 공장은 중국 자동차업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현재는 독일의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연 100만대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의 다이하쓰공업 등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80만대의 확장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금호타이어에서도 자동차타이어 공장을 지난 5월에 착공했다고 한다. 이후 유류가공업체인 '호월' 회사를 견학한 대표단은 오후 늦게 왕운곤 지린성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머물던 위황궁

9월 3일 오전에는 만주 역사탐방에 나섰다. 먼저 들른 곳은 위황궁(偽皇宮). 일본 관동군의 비호 아래 만주국을 지배했던 황궁이 있던 곳으로 현재는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1906~1967)가 1932년 만주국을 세운 일본군부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1945년까지 유폐되어 살았던 역사의 현장이다. 서재에는 왜소한 체구에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푸이가 군복을 입고 위풍당당한 관동군 사령관과 대화하며 지시를 받는 듯한 모습의 밀랍인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모습에서 웬지 식민지시대 조선왕조의 모습이 떠올랐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큰 직사각형 돌에 새겨진 문구가 선명하다. “勿忘九.一八 江澤民(잊지 말자 9.18 장쩌민)” 1931년 9월 18일 일본의 침략을 잊지 말라는 비석은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중국인의 심기를 반영한 것처럼 보였다.

위황궁을 둘러보고 난 뒤 오후에는 1937년에 세워진 중국 최초의 영화 제작소인 창춘영화제작소를 방문했다. 이 곳에서는 약 60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영화 '마지막황제'도 여기서 일부 촬영을 했다고 한다.

### 풍부한 자원과 경치 뛰어난 지린

중국에서 성(省)과 시(市)가 동명인 유일한 도시이다. 창춘에서 약 90Km 동쪽에 위치하며 인구는 450만 명 정도이다. 2005년 8월 포브스에서 중국에 공장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 순위를 발표하면서 지린시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송화강(松花江) 유역에 위치한 지린시는 경치가 아름답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3개의 수력발전소와 2개의 화력발전소에서 동북지역 발전량의 55.5%를 공급한다고 한다. 송화강은 겨울에도 얼지 않으며 수증기가 피어 올라 나뭇가지에 붙어 마치 눈꽃이 핀 듯 그 경치가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대표단은 9월 4일 오전, 지린시 경제개발구 산업시찰에 나섰다. 먼저 들른 곳은 지린연료에틸알콜유한회사. 옥수수를 원료로 연료에틸알콜 40만톤, 단백질 사료 20만톤, 그리고 옥수수 기름 2.2만톤을 생산하고 있었다. 근처에 있는 지린화학석유공장 또한 비스코스장섬유, 단섬유, 아크릴섬유 등 약 21만톤의 생산력을 가진 공장으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 Local to Local 협력으로 새로운 동북아 구상

오후에는 인간개발연구원과 지린시 정부가 공동 주최한 한중경제협력 포럼이 우리 대표단과 지린지역 기업인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측에서는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이 국가간(Nation to Nation)의 협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국가간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과 지방(Local to Local)의 협력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발전하면 국가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제발표를 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포럼이 끝난 후에는 관련 업체간의 구체적인 상품상담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알루미늄제품과 카본제품, 철강, 자동차부품의 상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저녁에는 지난 7월 인간개발연구원을 방문했던 지린시 서건일 시장의 접견과 만찬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4박 5일의 짧은 기간에 방문단 일행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중국정부가 79년 개혁 개방 이후 주로 동남부 해안도시와 서부대개발에 관심을 뒀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중공업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북부지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같아서 더욱 친밀감이 든다. 한편 지린시에서 만난 조선족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마음을 든든하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안내를 맡은 가이드가 조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 해외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마지막 인사말을 할 때는 우리가 더 노력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人間)



#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도 중요하나 열어준 시장부터 개척하자

이두호 (주)KIS-BANK 사장 / 차이나클럽 사무총장

##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참관과 지린성 산업시찰 통한 교류협력 모색

9월 1일 현지에 도착한 대표단은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식전 행사로 열린 '2006 중국 지린성·한중우호도시교류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지린성은 이미 한국의 강원도, 충청남도, 울산시, 전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번 교류회의에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한중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우리 대표단에서는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21세기 동북아는 과거 냉전시대 갈등의 질곡에서 벗어나 이제 긴 봄(Long Spring)이 長春(창춘)에서부터 올 것"이라는 취지의 축사를 해 참석자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2일 오전, "기획, 교류, 합작, 발전"을 주제로 한 제2회 지린·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가 우이 국무원 부총리의 개막 선포에 의해 막을 올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보시라이 상무부장, 왕운곤 지린성 당서기 등 중국정부 고위인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기업인 등 36개국에서 4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해 참가한 3만 명보다 괄목할만한 증가세로 설치된 전시부스만 2,200개에 달했다. 지린성 공보국에 의하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체결된 무역거래 규모는 3.84억 달러에 이르며, 투자 계약은 257개 항목 674억 위안에 이른다고 한다.

박람회 개막식에 이어 열린 '한국 비즈니스의 날' 행사에서는 중국 상무부 이소준 부부장과 한국의 정준석 산자부 무역투자정책 본부장 등이

발표를 통해 한국과 길림성의 기업교류가 진일보해 양국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장은 영구시설로 호텔까지 자리 잡은 대형 반원형 콤플렉스로서 성 단위시설이러기보다 규모 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라 중국인의 면모를 엿 볼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장 현판 중앙에는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하고 좌측에는 중국 국기와 북한국기, 우측에는 한국국기, 몽골국기, 일장기를 배치하여 중국이 백두산 천지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박람회장 내부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도요타자동차, 미쓰비시, 미쯔이, 마루베니 등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대형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기업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도요타에서 준비한 지능로봇은 처음으로 일본 본토를 떠나 전시회에 참가했다는데, 그래서인지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정치·외교적으로는 꺾끄러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의 동북3성에 대한 투자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비해 한국측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창춘에 1억 5천만 불을 투자해 제1자동차그룹과 타이어 합작공장을 착수한 것과 현대자동차가 박람회장 입구 광장에 전시부스를 설치했을 뿐 삼성, LG 등 여타 대기업들의 전시부스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일부 중소기업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도 30개 기업에서 80명의 대표단이 참여했다고는 하나 각



▶ 서건일 지린시장을 접견한 대표단



▶ 김영호 전 장관이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중 고려약과 생필품 등을 전시하고 단순 판매를 할뿐 아직까지 활발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4일 오전에는 지린연료에틸알콜공장을 시찰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지린성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를 원료로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데, 기술련에 옥수수 원료 10%를 혼합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개발한 기술로 전량 정부가 매입한다고 한다. 이제 옥수수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됨에 따라 길림성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린화학섬유공장을 둘러볼 때는 우리나라 70~80년대 섬유공장에서 사용했던 대량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날 오후에는 지린시와 연구원이 한국기업과 지린시의 경제, 무역, 투자, 관광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주최한 '한중경제협력포럼'이 열렸다. 양측은 이번 교류를 통해 향후 새로운 단계와 협력의 공간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 무한한 잠재력 지닌 지린성과의 교류확대 계기 마련한 대표단

이번 대표단은 중국 정부 고위인사 및 기업인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첫째, 지린성과의 정기적인 교류계기를 마련하였다. 2일 오후 지린성 왕운곤 당서기는 대표단을 특별 초청해 면담시간을 갖고 매년 박람회 초청하기로 함으로써 이번 교류를 계기로 지린성 및 지린시와의 유대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교류의 기반을 닦았다.

둘째, 중국정부가 동북3성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권을 개발하려는 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지린성이 주최한 박람회가 단순히 중국 각 성·시의 박람회가 아니라 일본, 한국, 북한, 몽골 등 지역협력을 유도하여 경제권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광둥성 광주, 복건성 하문 박람회가 동남아경제권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특히 동북3성 개발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과거 후진타오가 저개발 지역인 감숙성을 발전시켜 중앙무대로 등장하게 한 계기를 마련했던 경험을 재현시켜 중국공산당이 각 계층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는 복안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대표단이 지린화학섬유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 지린시 기업과 상담하고 있는 대표단

▶ 지린시 기업과 상품상담을 하고 있는 정문호 사장

▶ 대표단과 왕운곤 당서기의 접견

셋째, 일본기업의 동북3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이 국민정서나 정치적으로는 걸고러워 보이나 기업들은 옛 만주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듯 도요타가 대형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로봇쇼를 하는 등 일본기업들은 강력한 투자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창춘-지린이 연간 18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동북의 자동차 메카로의 성장잠재력과 화학, 섬유 등 굴뚝산업의 시설현대화와 공해방지 시설 등 잠재 투자수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중국이 열어준 시장,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우리는 이번 교류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리적으로 근접한 시장을 우리가 선점한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발해, 고구려사 왜곡 등 역사문제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역사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사다. 앞으로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영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확보가 관건이다. 20세기 초 서구열강들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침략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중국이 시장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시장을 일본기업이 주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개발 참여가 절실하다.

둘째, 지린성 등 동북3성 종합개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한다. 동북3성은 인구 1억이 넘고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중화학 공업기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독립된 경제단위로 발전이 가능하다. 이에 인간개발연구원이 지린성과 다져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린성 및 동북3성 종합개발 계획에 국내 연기관 등과 협의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성정부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이 고려하는 공업지대에 추가하여 환경산업 배치와 송화강 일대 골프장, 유람선, 장백산 일대 스키장 등 레저시설 건립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동북3성 개발 펀드조성이 필요하다.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중공업 분야는 이미 중국정부 스스로 투자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지린성의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과 골프장, 송화강 유람선 등 레저산업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개인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PEF 등 펀드조성이 필요하다. 연구원이 지린시를 비롯해 지린성 외자유치 당국에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도록 하여 우리의 잠재투자 펀드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회원기업 등이 동북3성에 투자 할 때, 중국 성정부에 대해 Witness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민보다 정부를, 개인보다 단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대변인 역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연구원의 회원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성정부가 특별한 관심과 후원을 하도록 하는 Witness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직하다. (人間)



# 전시작통권 논쟁을 보고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기초적인 준비조차 변변히 없으면서도 이것의 성공을 정권의 최대업적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 이라크에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다. 미국에서도 일고 있는 철군 계획에 대해, 이 나라에서는 일체 함부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정치상황으로 보아서도 이 정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사안을 제안할 정도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금 미국은 세계 도처에 기지를 가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지를 가지고 있는가. 세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이지, 그 나라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다.

미국이 일부 한국 국민의 반미감정에 기분이 상해서 작통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나는 이것도 설득력은 없다고 본다. 사실 한국의 반미감정은 생각하는 것처럼 심한 것이 아니다. 이라크 국민의 반미감정은 한국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 때문에 이라크에서 철군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한 나라는 아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슈퍼파워의 일방주의이다. 어디까지나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방민의 반미 또는 친미감정 때문에 군대를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한국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한다.

우리는 입만 열면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남이 보기에는 OECD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난, GDP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경제대국이다. 이런 나라가 국방력에 한해서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북한보다 약하다고 하면서 한국국방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한다고 미국을 설득하려 든다면, 미국이나 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어처구니가 없다고 볼는지 모른다. 한미방위조약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미국이 한반도를 버리는 것도 아닌데, 이 나라는 왜 이리도 겁이 많냐고 의아해 할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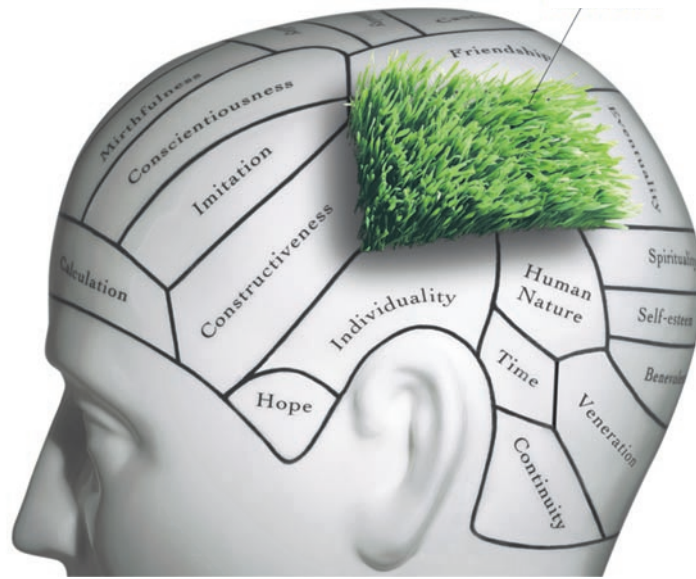
최근 신문을 보니 내란에 직면하고 있는 이라크 정부는 작전지휘권을 되찾았다고 한다. 이라크 정부가 원해서일까, 아니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일까. 아마도 후자가 사실에 가까울 것이 아닐까. 이라크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人間**



**전시작통권 인수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외교안보의 전문가가 아닌 학자들이 성명을 내는가 하면, 전직 외교관들이 대거 반대 이론을 펴고 있다. 이들의 동기는 이해하면서도 웬지 내게는 설득력이 적은 것 같다. 나 같은 문외한마저 논쟁에 뛰어들 필요는 없겠으나, 한 두 가지 느끼는 점이 있어 독자들의 참고로 소감을 적어 본다.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무현정부의 반미이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터이니 제발 작통권 이양을 하지 말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작통권 이양이 노무현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일까. 한국 정부는 입으로는 여러 말을 했으나, 행동으로는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면,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해왔다. 한미 FTA에 대해, 한국정부는



# GE의 새로운 친환경 전략, 에코메지네이션

에코메지네이션은 환경을 의미하는 Ecology의 eco와 GE의 슬로건인 'imagination at work(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의 Imagination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고객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E가 채택한 새로운 친환경 전략이다. 에코메지네이션은 고객의 발전, 나아가 사회의 공영을 위해 상상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GE의 약속을 담고 있다.

## GE 에코메지네이션의 주요 약속

- **연구개발 투자 2배 증가**  
청정기술 연구개발비를 2004년 7억불 수준에서 2010년 15억불로 증대한다.
- **에코메지네이션 관련 제품을 매년 투입해 2010년 매출 200억불 달성**  
환경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2004년의 100억불에서 2010년에는 200억불 이상으로 확대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까지 30~40%, 절대 배출량을 2012년까지 1%감축한다.
- **목표의 진척 상황 공표**  
목표의 달성 상황을 매년 '사회공헌 보고서'를 통해 측정 가능하고 투명한 형태로 보고한다.

<http://ge.ecomagination.com>  
[www.ge.co.kr](http://www.ge.co.kr)



GE imagination at work

